

AUTHOR 이보면

TITLE 고신신학의 뿌리

IN 월간고신

60호 (9, 1986): 26-31.

고신신학의 뿌리

전통개혁주의 신학의 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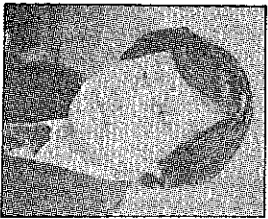
고신신학

이러는 것의 뿌리를 찾는 일은 1946년 9월 20일에 있었던 고려신학의 개교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고려신학교 개교시에는 아직 초대 교장이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었다. 그건 취임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기 보다는 당시 국내에 돌아오지 못한 만주의 박형룡 박사를 초대 교장에 취임할 분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송 상석 박사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단행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박 박사는 교신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신은 출발부터 전통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자 굳은 결의로 움직였었다는 것이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은 누가 무엇이래도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신학이었다. 1920년대에 그가 구 프린스턴의 신학을 공부 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1930년에 귀국하여 평양신학교에서 2년 중학, 조직신학을 주로 강의하던 그는 동 신학교가 폐교되자 만주로 가서 계속 신학을 강의하였다.

전통 칼빈주의 신학을 다시금 한국교회 내에 부활시키고자 하는 고려신학교의 설립자들에게서 박 형룡은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본래 전통 개혁주의 신학을 자신들의 신학으로 여겨 왔다. 그런 한국장로교회에 시련이 닥쳐 38년에는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40년에는 김 재준씨를 중심으로 조선신학교가 개교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교단의 신학인 것처럼 되어졌다. 이와 같은 신학적 혼란은 결국 신사참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다시금 신학을 전통 보수신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신의 개교이유이니 일단 고신신학의 뿌리는 거



이 보 민

이 시대 학교수,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 와 고려신학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수학했으며 화란의 칼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박형룡 박사의 초대 교장 취임은 지극히 당연했다고 하겠다. 박 박사가 유학으로부터 귀국하기 이전(1930년 도)에도 한국인에게 신학이 가르쳐졌지만 이때는 선교사들이 주로 신학교육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성도들은 어리거지 신학적인 결론을 본래의 한국적, 토속적인 방법을 통해 얻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형룡 박사가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학을 명실공히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같다.

고려신학교가 박 박사를 초대 교장으로 모시고자 했다면 그 일의 상징적인 의미는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신학을 어떤 다른 논리체계나 원리에 따라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적인 원리에 따라 진행시키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신학 작업이 신사참배라는 것을 비 성경적 신학논리로서 경당화하고자 하는 것을 배격하는 데로 주로 경주될 수밖에 없었다.

추구하는 방향과 배격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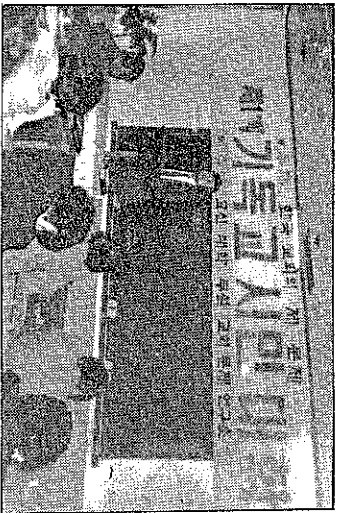
오늘에도 온갖 물질주의, 명예주의, 권위주의 등의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데로 우리 고신신학의 신학작업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고신 신학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할때에, 이런 본래의 고신신학 태도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의 형편에 적용시켜 보면서 오늘의 사람들은

어떤 교만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배격하는가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배격하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를 배격하는 잘못된 생각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의 행편을 본다면 본래 우리 민족의 동양적인 각종 사상과 신앙에서 밀듯이 들어와 오히려 오늘날의 우리에게 본래의 우리 것보다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서양의 각종 이론과 사상이 뒤범벅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서 개교회회의 올바른 성경적 신학(고신신학을 포함해서)은 잘못 이해되거나 전멸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서양적인 자율적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즉 내가 무엇이란지 일하며 달성할 수 있다는 서양적 사상의 흐름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이런저런 사상들, 예를 들면 에모 또는 형식을 중시하는 생각과 같은 것에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보전하면서 참된 성경진리를 지극의 우리 동포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세속사상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의 전격타락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맹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잘 알려진대로 우리의 고신신학이 표명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격타락의 교리에서 출발



인간의 전적타락을 거부
하거나 그것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 세속사상에 비해.....

발전된 개혁주의 신학

그러면 전적타락의 교리에 대해 박형룡 박사의 개혁신학은 어떤 문제를 지니며 그 후의 이근삼 박사의 조직신학은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문제가 개혁신학의 뿌리를 생각하고 또 그것의 발전을 생각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우선, 칼빈의 신학은 분명 인간

의 전적타락을 중시하는 신학으로서 인간이 본래 타락전에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또한 타락 후에는 어떠한 형편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고자 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인간 속에 본래 들어 있던 원의(原義,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했다. 이것은 칼빈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으로 보았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성경에 나오는 의와 지식과 거룩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특장부분에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인간에게 있어서의 전적 타락이란

칼빈신학에서의
모호함이 박형룡 박사
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구 포린스톤의 조직
신학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서.....

사실상 모호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모호함이 박형룡 박사의 신학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주로 구 포린스톤의 왈스·하지나 또한 루이스·벨코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학이 칼빈에서의 그와 같은 모호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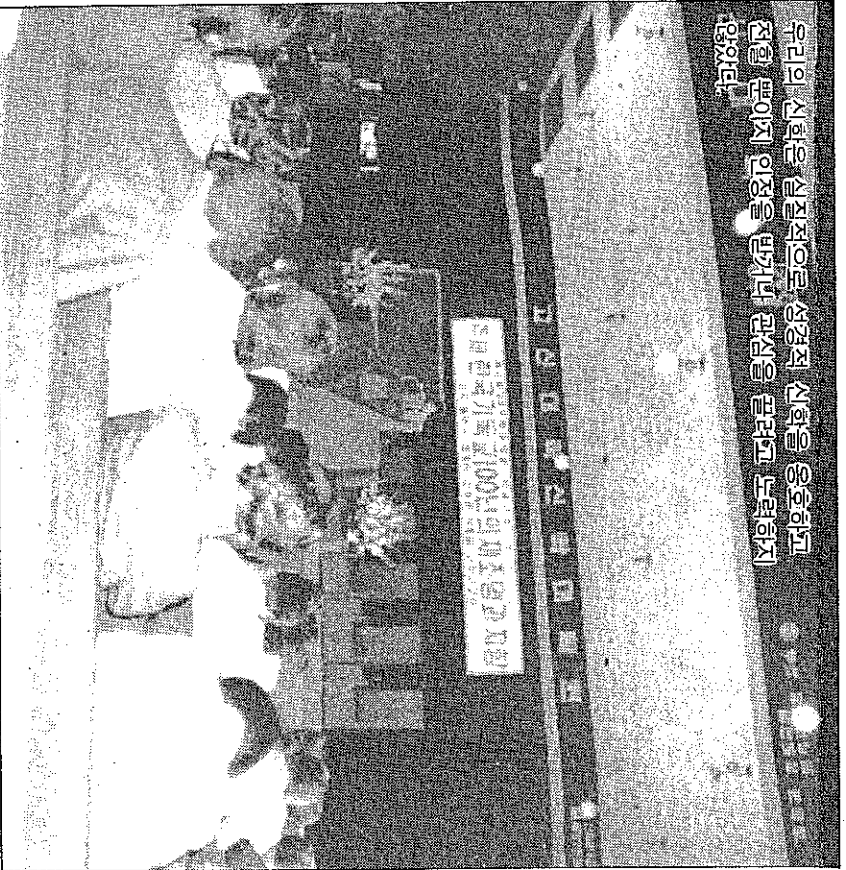
그에 비해 칼빈주의 신학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바빙크를 중시한 신학은 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신학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공이 큰 사람은 위에서 언급된 이근삼 박사이다. 이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원의 또는 의, 지식, 거룩등의 어떤 개념으로 보아서 인간이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배척한다. 하나님의 형상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 자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능력있는 자라는 말은 자질적 특징(substantial character)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은 그런 자질을 가졌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질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는 크게 다른 인간이지만 인간이 가진

은갖 자질들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정성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다. 또한 그와 같은 뜻에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바빙크가 주장하듯이 인간이 자기 의 일부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to have)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전부가, 아니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인(to be)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은 타락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인간이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나타내지만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아울러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부분(육신적인 부분까지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이제 그 인간에게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 동원되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으니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영혼, 육신, 모든 것 다 포함해서)도 타락안된 부분이 없게 된 것이다. 또 그 타락했다고 하는 바의 정도는 "전

우리의 신학은 실질적으로 성경적 신학을 옹호하고
전혀 보이지 않음을 발견된 편식을 밀려낸 노력하지
않았다.



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명실상부한 전적 타락인 것이다. 즉, 인간 인의 어떠한 부분도 타락안 된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타락의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까지의 180도 방향전환이 보이는 것처럼 전적인 것이다. 이만큼 전적 타락의 교리는 전혀 모호함이 없이 분명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비명크적인 신학이 그런 뜻에서 칼빈신학 이상으로 개혁주의적인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이 이근삼 박사 를 위시한 화란유학을 마친 교수들에 의해 고신에서 가르쳐지고 고신신학의 근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사상들을 올바르게 비판 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신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자들의 노력과 아울러 성경의 뜻을 정확히 밝혀

내기 위해 필요한 성경원어연구와 성경신학적 연구가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성경 신학은 성경의 뜻을 사람들이 임의로 파악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성경속에서 그 뜻을 찾아 보기위해 소위 구속사적 성경 해석방법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노력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성경적 신학을 옹호하고 전할 뿐

지금까지 우리는 박형룡 박사가 고신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서 고신신학의 발생이유와 그 이후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일각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봉사하는 신학적 사명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박형룡 박사가 교장취임 6,7개월 이후에 고신을 떠났다는 사실에서 또 하나의 고신 신학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박 박사가 고신을 떠난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런지 모르나 한국장로교사를 살펴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음의 중요한 이유가 밝혀진다. 즉 박 박사는 전술한대로 1930년 이후로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한국장로교 신학을 대변하면서 이끌어 왔다. 교단내의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총회적 차원에서 그는 문제를 다루면서 교단을 이끌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교단의 신학적인 발전이 되다시피 하였고 모든 교단성도들이

그의 신학적인 발언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는 전체 한국장로교 신학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그러던 분이 부산의 고려신학교에 왔을 때 그곳을 그 분이 영구히 처할 터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고려신학교는 총회의 직영신학교도 아니고 또 총회가 기교단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도 아니었다. 이러한 곳에서 전 한국장로교 신학을 대변하던 분이 과연 일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그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고신은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뜻할 것인가?

우리 고신의 신학은 실질적으로 성경적 신학을 옹호하고 전할 뿐이지 그 일을 통해 인정을 꼭 받아야 하고 또는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야 하는 등의 것을 배격하는 신학이다. 고신신학은 어떠한 인간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정착되거나 구속되어 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우리 학교에 종사하는 교수들 역시 가장 노력 해야할 것은 자신의 실력을 내적으로 배양함과 동시에, 외적인 자기 위신과 권위가 형성되어 가지 아니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스스로 살피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때에 우리 고신신학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신학이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신학이 될 때에 우리 고신신학은 위에서 말한 과제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것이 고신 신학의 뿌리를 찾아 보면 서 생각해볼만한 문제들이다. ❁